

바른미래당		〈논평〉	
유길종 대변인 논평		문병호 인천시장 후보	
연락처	032) 472-4179	이메일	yukj4u@gmail.com
담당자	유길종 대변인 (010-7122-4777)	배포일	2018. 6. 03 (토) 18:15

[유정복 후보야말로 소유하지도 않은 차량으로 생색내며 누워서 침 뱉기가 아닌가]

선관위 재산등록 자료에 근거한 문병호후보 선대위의 성명에 대해 유정복 후보 측이 허위 오보 운운하는 것은 난독증 의심돼.

- 성명서의 [출처: 후보재산등록 차량신고]사항을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가, 난독증인가
- 한국지엠 차량 한대도 사주지도 않았으면서 빌린 차량으로 생색내기 하는 것인가?
- 선거운동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타사 승합차종을 사용하는 것쯤은 양해 못할 사항은 아니나, 실제 한 대라도 사서 등록하고 이용하는 솔선수범이 필요.
- 이것이 말로만의 지엠살리기가 아니라 삶에서부터 진정성을 보이는 태도이다.
- 문병호 후보는 지엠차(캡티바)를 등록한 반면, 1, 2번 후보는 현대기아차를 타는 것으로 재산등록 되어 있어 (출처: 후보재산등록 차량신고)

[논평]

어제 우리 문병호 선대위의 성명 <현대기아차 타는 1,2번 후보와 지엠 캡티바 타는 3번 후보 중 누가 인천시장에 적합한가?> 에 대해 유정복 후보 캠프 측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한국지엠 캡티바를 타고 있다' 며 "누워서 침 뱉는 문병호" 운운하며 "명백한 오보이자 허위사실 유포"라고 밝혔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어제의 문병호 후보 선대위 성명서는 선관위의 후보 재산등록현황 중 차량소유 현황을 근거로 각 후보가 무슨 차량을 타고 있는지를 밝히며, 각 후보 간 소유 차량을 통해 한국지엠과 인천 지역경제살리기에 대한 진실성이 얼마나 있는지 묻고자 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백한 (소유등록) 사항은 굳이 외면하고 선거운동 기간 중 무슨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가를 들먹이며 허위사실 오보 운운하고 있다. 난독증이거나 무언가 왜곡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어찌 선관위 홈페이지에 만천하에 공개된 공식 자료를 무시하고 이런 억지 주장을 펼 수 있단 말인가?

어떤 사람이 무슨 차를 탄다고 하면 그가 실제 구매하고 정식등록 해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이 상식이다. 특정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리스나 렌트하여 사용하는 것을 보고 누가 어떤 차를 탄다고 하지는 않는다.

사실 한국지엠은 그간 글로벌 전략상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하며 국내시장 수요에 걸맞는 라인업을 구축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가져왔다. 특히 승합차량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기 때문에 선거 때만 되면 한국지엠 노동조합 임원 선거에서조차 현대기아 승합차량을 빌려 선거운동을 해오던 안타까운 현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일시적 필요에 따라 없는 차종에 대한 렌트 등은 얼마든지 이해 가능한 상황임을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명확히 묻는다.

현재 1번, 2번 시장후보 측은 등록되어 소유하고 있는 한국지엠 차량을 몰고 있는가? 우리가 선관위 공식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특히 유후보측은 여러 종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정작 한국지엠 차량은 한대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아니면 어디 몰래 숨겨두기라도 했던 말인가.?

선거 시 일시적 편의를 위해 임대(?) 이용하는 차량을 가지고, 한국지엠과 지엠경제살리기에 대한 고심의 흔적을 증명하려 한다면 시민들이 웃을 것이다. 여러 대의 타사 차량을 소유하면서도 단 한대의 지역생산 차량을 소유등록하고 있지 않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선관위 후보재산등록을 엉터리로 한 것이던가.

이런 오해(?)를 떠나서라도 그동안 철수설에 시달리며 판매악화로 치달던 한국지엠 차량을 남보다 먼저 사서 당당히 등록하여 이용하며, 솔선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4년간 시장을 역임한 분의 태도이여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선관위 재산등록에서 드러난 차량현황과 다른 피치 못할 사정이나 정황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경위를 솔직히 밝히거나 하면서 진실을 설명하면 될 일이 아닌가?

혹시라도 실제로 구매등록한 차량 한 대 없이 선거 시 일시적으로 리스회사의 돈벌어 주는 것이 지역생산 차량을 사랑하는 태도라고 강변한다면 시민들이 웃음거리가 될 뿐이고, 표로서 지역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끝-

● 문의 : 유길종 대변인 (010-7122-4777)